



2019학년도 ‘교수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학생처(처장 이준수 교수)는 6월 17일(월) 오전 10시 30분 대학본부 3층 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교수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 교수단 장학금은 우리 대학 개교 이래 재직 교수 전원이 1인당 일정금액을 매월 장학기금으로 기탁해 적립된 장학금으로 2009년 4월 최초로 장학금이 지급됐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각 학과별로 추천을 받아 학업과 품행이 뛰어난 재학생 20명에게 인당 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조현서** 기자 jj5422@naver.com



장학금 수상자 명단

이름	학년	학과
형예림	1	간호학과
나채은	2	경찰법학과
송영래	3	대체의학과
김미지	3	물리치료학과
신보희	2	미용과학과
박소현	3	보건행정학과
유해빈	2	사회복지학과
김보람	2	상담심리학과
김현수	1	서비스경영학과
유의정	3	식품영양학과
김지원	3	실내디자인학과
홍승현	1	어린이영어교육학과
조은경	1	언어치료학과
김혜원	3	유아교육과
이정원	4	작업치료학과
박지희	3	중등특수교육과
김리나	3	초등특수교육과
황영지	2	치위생학과
박민주	1	항공서비스학과
유수민	3	화장품과학과

Contents

- 01 2019학년도 ‘교수단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 실시

02 대학일자리센터,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 개최

03 어등건강정보, 사설, 어등만평㉨

04 교무처 입학팀, 2019년 제 7기 Q-Leader 홍보대사 임명

05 교양기초교육원, 비교과 프로그램 ‘과학의 향기’ & ‘English Story’ 실시

06 교직과정센터, 2019년 1학기 교직과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 개최

07 사회복지학과, 광주보호관찰소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 실시

08-09 유튜브 크리에이터 추천

10-11 바르게 알면 더 재미있는 역사 돋보기④ - 이지훈

12 기행문 - <죽흥으로 떠난 일본여행> 양유빈(미용과학과 1)

13 기자수첩 - <5월의 축제?> 정유담(상담심리학과 2)

14-15 무등산을 다녀와서 - 이세인(미용과학과 1)

16-17 필기구에 담긴 인문의 향② - 김덕래

18 공연, 10년 전 이달의 음악, 책 읽어주는 여자㉨

19 외국어 첫 걸음, 고사성어, 어등자유게시판, 영화 쓱쓱

20 광주여대 미디어센터 ‘책사랑’ 캠페인④

대학일자리센터,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 성황리에 마쳐 2019년 상반기 대학일자리센터 자체 워크숍 실시

대학일자리센터(센터장 이준수 교수)는 6월 5일(수)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 30분까지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장에서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내외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까지 빈자리 없이 성황리에 마쳤다.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공항공사(사장 손창완), 항공일자리 취업지원센터의 주최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6월 3일(월) 부산에서 시작하여 광주지역에서 두 번째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6월 11일(화) 제주지역에서 마지막 설명회가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주최기관인 항공일자리취업지원센터소개를 시작으로 참여기업(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의 채용설명회, 사무·승무·조정·정비직의 현직자 합격성공기 특강, 외항사 승무원 특강으로 진행됐다. 채용설명회는 하반기 채용 대비, 방학 시기에 준비해야 할 사항을 중점으로 정보가 제공되었으며, '합격 성공기 특강'은 현직자들의 최신 노하우 공유 및 참여 학생들의 적극적인 질문, 진솔한 답변으로 진행됐다.

특강에 참여한 고혜원(항공서비스학과 4) 학생은 "이곳 광주에서, 꿈꾸던 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한 번에 얻고, 취업 노하우

까지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참여 학생들의 집중도와 참여도가 높고 호응도가 좋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활기찼다는 후문이다. 항공일자리 지역별 릴레이 설명회를 후원하고 더불어 구직 스킬 향상을 위한 컨설팅관 운영, 취업 응원 이벤트관 운영 등 잡(Job)드림 페스티벌을 함께 진행한 조명기 팀장은 "본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항공 일자리를 꿈꾸는 다수의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보람되며, 계속적으로 진로·취업과 관련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6월 18일(화) 오전 10시 대학본부 1층 모의면접실에서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반기 자체 워크숍을 실시했다. 본 워크숍은 1년차 사업 자체 평가 개선 계획 및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 운영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대학일자리센터장 및 관계자 7명이 참여했다. 대학일자리센터는 1년차 성과평가에서 '우수'를 받았으며, 오미경 직원은 "이번 대학일자리센터 자체 워크숍은 2년차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진행된 것이며, 향후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재학생들의 진로·취업 서비스 질적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유담 기자 jyd201800@naver.com



도서관, 2019학년도 다독다독(多讀多讀) 프로그램 수료식 성료 2019학년도 3차 인문학 특강 진행

도서관(관장 황란희 교수)은 미디어센터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6월 5일(수) 도서관 7층 마음라운지에서 2019학년도 3차 인문학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남부대학교 김영식 교수가 '행복의 열쇠-웃음'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영식 교수는 "마음웃기는 칭찬, 감사, 용서이며, 나에게 사랑한다고 마음깊이 칭찬하라.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용서는 가장 이기적인 자기 사랑법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참여한 학생들도 소리 내어 웃으며 즐거우면서도 진지하게 경청했다. 김혜옥 도서관 직원은 "3차에 걸친 인문학 특강에 참여해 주신 세 분의 강사와 강의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6월 14일(금)에 정보통신관 세미나실에서 '2019

학년도 다독다독(多讀多讀) 프로그램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6개의 팀(5개 학과, 학생 48명)과 6명의 지도교수가 참여하여 세미나실 뒤편에 마련된 장소에서 전시된 프로그램 결과물을 보며 가벼운 토론을 나눴다. 추후 진행된 수료식에서는 참여한 6개의 팀 모두에게 수료증 수여와 함께 기념품(LED 램프)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황란희 도서관장은 "한 학기동안 6회에 걸친 주차모임을 진행하며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준 학생들과 지도교수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2020학년도 다독다독 프로그램도 많은 참여와 기대 바란다."고 전했다.

양유빈 기자 amy710703@naver.com



학생처, 2-3차 '마음나눔 라면 전달식' 실시

학생처(학생처장 이준수 교수)는 총학생회(회장 이희빈, 부회장 박효빈)와 함께 용진육아원(원장 민재웅)과 (사)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협회장 정진삼)를 방문하여 '마음나눔 라면 전달식'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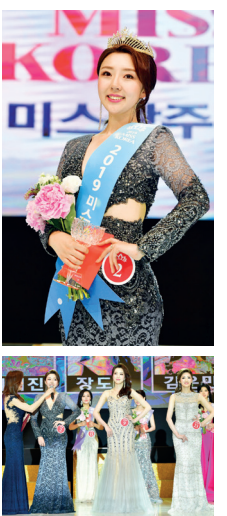
5월 23일(목) 광산구청을 방문하여 라면 1,000개를 기부했던 1차 마음나눔 라면 전달식에 이어, 이번 2-3차 전달식에서는 각 기관에 라면 500개씩을 기증했다. 한국장애인문화광주광역시협회 정진삼 협회장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라면이라 그 의미가 남다른 것 같다"고 전했으며, 이준수 학생처장은 "우리 대학의 기부 활동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현서 기자 jj5422@naver.com



미스광주 선발대회에서 영예의 훈(2위), 美(3위) 배출

한국일보 주최, 광남일보 주관으로 5월 26일(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미스코리아 지역예선 '미스광주 선발대회'에서 우리 대학 재학생이 참가하여 영예의 '선(2위)'과 '미(3위)', '미스텔런트', '미스스피치'에 각각 선발되어 총 4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이번 지역예선에서 장도아(서비스경영학과 4) 학생은 '선'에 선발되었으며, 이어진(항공서비스학과 4) 학생은 '미'에 선발되었다. 김민경(항공서비스학과 4) 학생은 '미스텔런트'에 입상하였고, 이상민(항공서비스학과 4) 학생은 '미스스피치'에 입상하였다. 이밖에도 2019미스대전·세종·충청 선발대회에 출전한 임차은(항공서비스학과 3) 학생은 '협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우리 대학은 지성과 덕성에 이어 아름다움까지 고루 갖춘 여성인재 양성의 산실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번 2019미스광주선발대회에서 진, 선, 미에 선발된 3명의 입상자들은 7월 11일(목)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있을 2019미스코리아 본선 무대를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박주영 기자 yeong9611@daum.net



어등건강정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조영희
간호학과 교수,
보건진료소장

날씨가 더워지면서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4월 6일)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따라서 일본뇌염과 그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처음 발견한 때 발령하며, 일본뇌염 예측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59개 조사 지점에서 공동으로 모기를 채집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밀도 및 분포를 분석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며,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 10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신고된 환자의 약 90%가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해당 연령층에서 예방접종 권장 대상자의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하고,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은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하다. 성인의 경우,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최근 빨라진 일본뇌염 매개모기 확인 시점이 전년도에 비해 5일 늦어진 이유가 봄철 낮은 평균기온(심한 일교차)으로 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함으로써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을 맞이해보자.

社說

사설

조롱과 막말을 하지 말자

어느덧 여름이다. 개강 즈음에는 연초록 나뭇잎이 여러게 나오더니 종강을 맞이한 지금은 어느새 짙은 초록으로 변했다. 따사로운 봄날의 햇살은 한낮 여름의 작열하는 태양을 마주보기 힘들 정도로 눈부시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났다.

지난 학기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일그러진 모습이 또 한 번 첨예하게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조롱’과 ‘막말’이다. 조롱은 얼마 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허블레아니 침몰 사고를 두고 일부 집단에서는 이를 조롱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한국인 관광객이 대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헝가리인들은 한국인 희생자를 안타까이 여겨 ‘아리랑’을 부르는 등 추모의 분위기를 이어가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집단들이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하고 있어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들은 2014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 참사’에서도 유가족들이 ‘시체장사를 징하게 해쳐먹었’다고 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일부 극우 성향의 인사는 5·18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획책한 ‘폭동’이라고 했고, 일부 야당 정치인은 민주화 유공

자를 ‘괴물집단’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를 ‘구걸외교’,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막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왜 조롱과 막말을 하는 것일까. 조롱은 상대방을 알보는 것이고, 막말은 말로 하는 도발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지나친 이기적 개인주의로 인해 남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점차 상실해가고 있다. 예부터 우리 사회가 강조했던 미풍양속(美風良俗)이니 상부상조(相扶相助)하는 전통은 이제 박물관 유물로 남겨야 할 만큼 남의 고통에 대해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현 실태에까지 이르렀다. 그럴수록 우리 사회는 점점 ‘헬조선’이라는 오명을 더 뒤집어 쓸 뿐이다.

조롱과 막말의 반대말은 없다. 반대말이 없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말이라는 뜻이다.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천지만물은 모두 제각각 짝이 있다. 짝이 없다는 것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롱과 막말은 있어서는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조롱과 막말에 담긴 위선에 속지 말아야 한다.

광주여대신문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발행인 이선재 총장
주 간 임준성 교수
편집국장 박주영

발행처 광주여대 미디어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여대길 201
미디어 062)950-3570 주간실 062)950-3647

미디어센터,

베트남어잡지 <답찌혹드엉 KWU> 창간호(1호) 발간

미디어센터(센터장 임준성 교수)는 베트남어잡지 <TẠP CHÍ HỌC ĐƯỜNG KWU> 창간호(1호)를 6월 3일(월) 처음으로 발간했다. <TẠP CHÍ HỌC ĐƯỜNG KWU>는 ‘답찌혹드엉 KWU’으로 읽으며, ‘광주여대의 잡지’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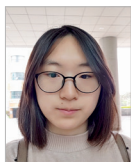
이번 <TẠP CHÍ HỌC ĐƯỜNG KWU> 창간호는 영문잡지 38호를 바탕으로 편집하였으며, 주요 기사로는 ‘2019학년도 상반기 Campus News’, ‘교내 동아리소개 <스텔라>, <익스트림>, 5.18민주화운동 39주년 기념 책임기 <소년이 온다>, ‘특집-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대생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스포츠-배구’, ‘여름방학 특집-필리핀 세부’, ‘울산 고래축제’, ‘재미있고 신기한 이색직업’, ‘지구환경보호의 날’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국제교육원 홍옥린 직원은 “우리 대학에 베트남 유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 아직까지는 학생들을 위한 편의가 여러모로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이번 베트남어잡지 <TẠP CHÍ HỌC ĐƯỜNG KWU>을 계기로 베트남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겠으며, 한국과 베트남 두 나라가 서로 긴밀하게 교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ẠP CHÍ HỌC ĐƯỜNG KWU>는 재학생들의 베트남어 실력 향상과 대학의 글로벌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2명의 유학생 Nguyễn Thị Thu Thảo(응우엔티투타우, 서비스경영학과 2)와 Nguyễn Thị Quỳnh Hào(응웬티퀸하오, 서비스경영학과 1) 기자가 활동하고 있다. 다음 호인 제2호는 2019년 10월 28일(월)에 발간할 예정이다. 박주영 기자 yeong9611@daum.net



어등만평 29



김연우
상담심리학과 2



입학팀, 2019년 제 7기 Q-Leader 홍보대사 임명

입학팀(입학팀처장 오재연 교수)은 5월 27일(월) 대학 본부 총장실에서 제7기 Q-Leader 홍보대사 10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서류전형과 면접 및 시험을 통해 선발된 홍보대사는 내년 2월까지 입시박람회 현장과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학교홍보 활동 및 각종학교 행사의 귀빈 의전을 담당하여 우리 대학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된다. 이선재 총장은 “한강 이남의 유일한 여자대학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줬으면 좋겠고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했다. 우리 대학은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매년 10명가량의 학생홍보대사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으며, 선발 학생들에게는 학교에 대한 자부심과 리더십 함양에 기회를 제공하고 유니폼과 활동비 지급 혜택까지 제공되어 매년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세인 기자 seinee0202@naver.com



국제교육원, 중국 온주대학 구강대학 외 3개 학교 방문

국제교육원(원장 김혜정 교수)은 6월 4일(화)부터 6월 6일(목)까지 중국 온주지역 대학교 및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양교 간 교류프로그램 다양화 및 협력강화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온주대학 구강대학과 온주여자대학은 MOU 체결 이후 현재까지 학생 간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유학생 졸업생들이 취업부문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서 학생들의 입학 상담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양교는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특히 미용학과, 항공서비스학과 및 실내디자인학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

다고 전했으며, 우리 대학은 지난학기에 이어 2019년 3학기에도 온주대학 구강대학에 유학을 희망하는 교환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김혜정 국제교육원장은 “지속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기존 협력 학교와는 교류성과를 바탕으로 두터운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겠다”며, “새롭게 방문한 절강 안방직업기술대학 및 온주용만직업고등학교와도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고 전했다. 박주영 기자 yeong9611@daum.net



교양기초교육원, 비교과 프로그램 ‘과학의 향기’ & ‘English Story’ 실시

교양기초교육원(원장 김영미 교수)은 1학년의 기초교양 및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 5월 한 달 동안 3~4회기에 걸쳐 ‘과학의 향기’와 ‘English Story’ 비교과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과학의 향기’는 ‘사물인터넷 프로그래밍(교양필수)’, ‘English Story’는 ‘영어회화(교양필수)’ 교과목 수강생이 대상이었다. 외국인(베트남,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이해 및 한국

어 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어, 그것이 알고 싶다!’ 비교과 프로그램도 5월 한 달 동안 4회기에 걸쳐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베트남 유학생 하이반은 “한국 학생의 참여 없이 유학생 중심의 토론 및 체험으로만 이루어져 색다른 시선으로 한국을 알아가는 행복한 소통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양유빈 기자 amy710703@naver.com

교무처 입학팀, 고교-대학 연계 진로진학체험(꿈꾸는 공작소) 프로그램 O.T 실시

교무처 입학팀(부처장 오재연 교수)은 6월 3일(월)부터 6월 5일(수)까지 삼일에 걸쳐 우리 대학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19년 1기 고교-대학 연계프로그램(꿈꾸는 공작소)’ 공모에 총 5개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1기 고교-대학 연계 프로그램에 선정된 5개 프로그램은 항공서비스학과와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유아교육과와 “행복한 유아교사 되어보기”, 작업치료학과와 물리치료학과와의 융합 프로그램인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 화장품과학과의 “화장품으로 경험하는 과학 : 화장품 연구원을 꿈꾸다”, 초등특수교육과와 중등특수교육과의 융합 프로그램인 “나도 미래의 설리님 선생님! 올바른 장애인 이해 교육을 통한 특수교사를 꿈꾸다”로 구성됐다. 이번 프로그램의 1차 오리엔테이션은 6월 3일(월) 오후 7시 30분 대학본부 1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2차 오리엔테이션은 6월 4일(화), 3차 오리엔테이션은 6월 5일(수) 오후 7시 30분 국제회의장에서 ‘항공사 객실승무원을 꿈꾸는 그대들에게’, ‘4차 산업혁명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 ‘나도 미래의 설리님

선생님! 올바른 장애인 이해 교육을 통한 특수교사 꿈꾸다’, ‘화장품으로 경험하는 과학 : 화장품 연구원을 꿈꾸다’의 프로그램을 차례대로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의 세부 내용은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진로진학 상담지도교수, 학생의 출석관련, 프로그램 운영기간 중 안전 등에 관한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했다.

박경 팀장은 “이 프로그램은 학생의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체험 프로그램으로 학생 스스로 선택하고 경험하는 다양한 교육과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진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전하며, “1기에 참가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담 기자 jyd201800@naver.com



교수학습지원센터, ‘2019학년도 1학기 대학연계 글쓰기 공모전’ 운영

교수학습지원센터(센터장 이우진 교수)는 5월 29일(수) 재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 증진 및 대학 간 소통 기회 마련을 위해 대학연계 글쓰기 공모전을 운영했다. 대학연계 글쓰기 공모전은 우리 대학과 목포해양대의 교육 교류 사업의 하나로 ‘성공한 자녀 교육의 기준은 무엇일까’, ‘우리나라에 난민을 수용해도 괜찮을까’라는 주제에 대해 양 대학 재학생이 참여하는 논술 대회로 운영됐다. 이날은 글쓰기 공모전 우수자 및 참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우수 작품 발표를 통한 우수성과 공유 및 양 대학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윤태선 직원은 “지역 대학 간 교육 교류 사업을 통해 재학생들을 위한 공모전 및 사회봉사 활동 등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현서 기자 jj5422@naver.com



취창업
지원센터

‘2019년 상반기 창업스쿨’ 프로그램 실시

2019 청년취업아카데미 2차 운영위원회 회의 실시

광주챔피언스필드에서 KIA타이거즈 애국가 부르기 이벤트 참여



취창업지원센터(센터장 이준수 교수)는 5월 29일(수), 6월 5일(수) 학생들의 창업 기본능력강화의 일환으로 ‘2019년 상반기 창업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본 프로그램은 창업에 관심 있는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BM(Business Model) 이해 및 BM을 활용한 아이템 구체화’를 주제로 창업에 대한 기초과정을 학습했으며, 심화과정으로 하반기 창업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창업스쿨은 아이템 선정에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천도현 직원은 “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역량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시간이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6월 4일(화)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하여 2019년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취창업지원센터 위원장의 주재로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광주고용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와 7개 기관의 운영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주요사항인 ‘2018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장기과정 수료생 취업연계’와 ‘2019년 청년취업아카데미 과정 진행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 및 대다수의 위원은 그동안 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되고 제시된 사항을 대학에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2019년 사업 과정개편에 반영하고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더불어 운영방안 논의 시간에는 ‘미취업자 정보공유를 통한 취업률 향상’, ‘선배특강을 통한 이력서 퇴사 방지’, ‘광주형 일자리사업에 대한 교육’ 등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성과 창출 노력을 위한 위원들의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음 운영위원회 회의는 단기과정 결과보고 및 장기과정 중간점검을 위해 9월 경에 진행될 예정이다. 취창업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 구성원은 6월 19일(수) KIA챔피언스필드 경기장에서 열린 한국프로야구 KIA와 SK의 경기 전 국민의례에서 애국가 부르기에 참여했다고 21일 밝혔다.

애국가 부르기는 KIA타이거즈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로 6월 12일부터 실시됐으며, 광주여대는 취창업지원센터에서 이벤트 신청을 하여 재학생과 교직원 15명이 약 7,000여 명의 관중과 선수단을 대표하여 1분간 애국가를 제창했다. 천도현 직원은 “재학생과 직원들이 함께 대외 이벤트에 참여하여 화합의 장을 이루었다”며, “이번 이벤트를 계기로 대학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세인 기자 seinee0202@naver.com



평생교육원,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실시

2019년 마음나눔 행복요리교실 종강



평생교육원(원장 박병건 교수)은 6월 10일(월) 교내 정보통신관 3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개강식을 갖고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실시되는 교육은 현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원장직무교육과 1급 승급교육으로 7월 19일(금)까지 실시된다.

원장직무교육은 어린이집 원장 직무를 담당할 때부터 2년이 지난 자, 직무교육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자가 대상이며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총 40시간의 교육(인성·소양, 건강·안전, 장애 및 다문화 실재, 기관 운영의 실재 등)을 이수해야 한다. 1급 승급교육은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보육업무 경력만 2년 이상이 경과한 자

가 대상이며 6월 24일(월)부터 7월 19일(금)까지 총 80시간의 교육(인성·소양, 건강·안전, 장애 및 다문화 실재, 보육활동 운영의 실재 등)을 이수해야 한다. 윤정원 팀장은 “보육교직원의 귀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을 꼼꼼하게 점검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보육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6월 12일(수)에 ‘2019 마음나눔 행복요리교실’ 10차시 요리수업을 끝으로 종강을 맞이했다. 광산구 장애인복지관과 평생교육원 주최로 실시된 이번 프로그램은 자립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요리교육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6월까지 10회에 걸쳐 실시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

학의 우수한 실습 환경을 활용하여 요리교육 프로그램으로 장애인이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식생활 자립지원 프로그램이었다.

마지막 10차시 교육에서는 ‘나도 요리왕’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쌓아온 요리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요리를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수강생들에게 요리에 대한 자신감도 갖게 하고 음식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리에 도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임귀자 책임교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대학으로서 지역사회에 발전에 협력하고 기여하는 평생학습영역을 확장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주영 기자 yeong9611@daum.net

교직과정센터, 2019년 1학기 교직과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 개최

교직과정센터(센터장 한민석 교수)는 6월 14일(금) 무등관 1425호 강의실에서 2019년 1학기 교직과 교육봉사활동 사후 평가회를 개최했다. 교원자격무시험검증 교원자격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재학 중 교육봉사활동 60시간(2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우리 대학은 ‘교육봉사활동 내규’와 ‘매뉴얼’에 따라 사범계열 3개 학과(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는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개설하여 각 학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과정은 교직과정센터에서 ‘교육봉사활동’ 교과목을 개설하여 교육봉사활동의 사전지도, 실습지도, 사후평가의 단계적 시스템을 통해 센터장이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아영 직원은 “학기말 사후 평가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봉사활동의 과정, 소감과 의견을 듣고 다음 학기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6월 20일(수) 정보통신관 4층 세미나실에서 2019년 전

기 교원양성학과 교원 역량개발 초청 특강을 성료했다고 21일 밝혔다. 교직과정센터 2019년 전기 전문가 초청 특강은 교원양성학과 관련 교수자를 대상으로 교육현장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교원양성교육의 목표와 철학의 이해, 교원양성교육에 맞는 통합적 교과지도 및 교수법 전문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날 특강은 서울대 교육학과 김동일 교수를 초청하여 ‘학습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교수자 역량 강화’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석 대상자는 교원양성과정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수업 담당 교수자로서 일반대학 교육과(유아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일반대학 교직과정(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식품영양학과, 미용학과), 교직과정부, 교육대학원(양성기능, 재교육기능), 그리고 기타 소속 교원이 참여했다.

교직과정센터는 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력하여 교원양성

과정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수업을 담당하는 교수자와 직접 관계된 역량개발 지원시스템,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양성과정 단위별, 학과 차원의 교수자 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백기훈 직원은 “교원양성학과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자 역량 주기적 확인, 학생 강의 만족도 결과를 활용한 교수자 역량 개발 지원, 교수자 수요를 반영한 역량 프로그램 개설, 질 높은 외부 역량 프로그램 활용, 전문성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갈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정유담 기자 jyd201800@naver.com



치위생학과, “마음나눔 전공연계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나눔 실천제 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우수학생 표창장 및 장학금 수상

치위생학과(학과장 조혜은 교수)는 5월 24일(금)부터 6월 7일(금)까지 첨단초등학교, 영천병설유치원, 울목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빛고을노인센터, 산새소리어린이집, 늘푸른어린이집 6개 기관에서 대상자별 맞춤형 구강보건교육(구취측정, 구강위생용품 적용, 금연) 봉사활동으로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했다.

노인센터 관계자는 “유익한 구강보건교육과 따뜻한 관심에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 및 봉사를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어린이집 관계자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유익한 교육활동이었고, 아이들에게 구강관리 습관을 익힐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첨단초등학교에서 근무하

는 교사는 “치과위생사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6월 11일(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2019년 제74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행사에서 최세나(치위생학과 3) 학생이 ‘우수학생 표창장 및 장학금’을 수여받았다. 광주광역시치과의사회 주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건치인 수상과 치아사랑 공모전 수상자 시상 및 음악회가 진행하였으며, 매년 구강보건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의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조현서** 기자 jj5422@naver.com



실내디자인학과, ‘2019 서울·경기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체험학습’ 실시

실내디자인학과(학과장 이향미 교수)는 5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1박 2일간 ‘2019 서울·경기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2019 학과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으로 실내디자인학과 전학년 재학생 100여 명과 지도교수 3명이 참여하였으며 서울 경기 일대의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건축·인테리어 작품을 견학·체험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서울·경기 글로벌 디자인 프로젝트 체험 학습으로 방문한 곳은 독창적으로 실험적인 창작활동이 실현되는 디뮤지엄/

디자인 트렌드가 시작되고 문화가 교류하는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세계 최대 가구브랜드 IKEA/책을 주제로 소통하는 문화감성공간 별마당도서관&코엑스 등이다.

이향미 학과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외 유명 건축가들의 건축·인테리어 디자인을 체험, 최신 대형 프로젝트 직접 경험으로 디자인 감각을 키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관심도 향상과 전공역량강화, 자발적인 학습 및 취업 능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양유빈 기자 amy710703@naver.com



간호학과, 치매극복선도대학선정에 따른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 실시 전공역량 강화 특강 개최 현장기관 견학&연수 프로그램 재난안전간호심화과정 실시



간호학과(학과장 조인숙 교수)는 5월 27일(화)에는 무등관 1519호실에서 광산구 치매안심센터와 광역치매안심센터의 지원으로 봉사자를 위한 치매파트너 플러스 교육을 1,2학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우리 대학은 4월부터 ‘치매극복 선도대학’에 선정되어 치매 친화적 문화조성과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치매 돌봄 문화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치매안심센터(소장 김옥현)는 “광주여대 간호학과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면 한다.”며, “참여한 학생에게는 치매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봉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교육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인숙 학과장은 “광산구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에 협력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간호 전문인을 배출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5월 29일(수) 오후 4시 본관 1층 국제회의장에서 학생들의 인간에 대한 공감능력과 감성 및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간호학 교과목에 음악을 접목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2015년부터 ‘간호학과 시스터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시작으로 매년 음악을 통한 감성함양의 시간을 가졌는데, 이번에는 간호학 영역에서의 음악의 활용과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300여 명의 재학생들은 오페라 한마당, 마음으로 전하는 수화의 노래, 몸으로 표현하는 음악, 피아노와 비올

라 악기로 전하는 협연과 노래, 감성을 쏟아내는 밴드(우리 대학 루미너스, 조대 칸타빌레) 등의 하모니로 이루어져 전공 교과시간에 경험해 볼 수 없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조인숙 학과장은 “미래의 간호사로서 풍부한 감성과 정서는 환자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자질이기에 학과에서는 앞으로 도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형식으로 ‘간호사 되어감’을 돕는데 주력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6월 4일(화)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권명옥 교수)와 군 재난안전교육센터를 방문하여 재난안전간호심화과정을 실시했다. 재난안전간호심화과정은 혁신사업(취업처)인 상반기 현장기관 견학&연수 프로그램으로 2016년도부터 2학년을 대상으로 4년째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 대학 혁신사업으로 선정되어 4학년을 대상으로 심화과정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내용은 재난간호의 이론과 재난환자분류 도상훈련(40케이스), 이에 따른 응급처치, 밀폐공간의 재난현장 응급처치, 보호복 착용 등의 다양한 실습을 진행한다. 조인숙 학과장은 “최근 재난이 예고 없이 발생하고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로 지역사회의 다학제 인력들의 초동대처가 필수적이다”라며, “이에 간호사가 국내·외 재난현장에서 효율적으로 대처 가능한 실무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글로벌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들이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이번 프로그램 참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주영** 기자 yeong9611@daum.net

사회복지학과, 광주보호관찰소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 실시 전공학습역량강화프로그램 ‘지역사회현황 포럼 프로그램 준비단계 실시’

사회복지학과(학과장 이형하 교수)는 5월 17일(금)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광주 명성제과빵학원에서, 5월 31일(금) 오후 14시부터 17시까지 광주 아름다운사람들 미용학원에서 광주보호관찰소청소년 멘토링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법무부 특별 법사랑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4월 12일(금)부터 7월 5일(금)까지 광주보호관찰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면담 및 집단 활동 등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삶의 의미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있다.

5월 29일(수)에는 오후 14시부터 16시까지 어등관 518호 강의실에서 전공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현황 포럼 프로그램 준비단계’를 실시했다. 그 동안 지역사회현황 포럼 이론단계에서는 전공기초능력을 배양시키고자 지역사회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통해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에게 지역사회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했다. 이날은 그동안 이론단계의 활동을 기초로 학생들의 성과보고회를 개최했으며, 학생들은 지역사회현황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했다.

이형하 학과장은 “이론단계에서 필요한 강의를 통해서 지역사회현황과 문제점을 알고, 준비단계에서 학생들이 실

질적으로 문제해결방법에 대해서 서로 발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공기초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조현서 기자 jj5422@naver.com



언어치료학과, ‘제10회 언어치료학과 학술제 및 언어재활사 선서식’ 개최

언어치료학과(학과장 박은실 교수)는 5월 31일(금) 대학본부 국제회의장에서 ‘제10회 언어치료학과 학술제 및 언어재활사 선서식’을 개최했다. 1부에서는 ‘졸업생 선배에서 희망을 듣다’라는 주제로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1기 졸업생: 언어재활사 박연수), 김제언어치료실(1기 졸업생: 언어재활사 이서희)에서 근무하는 언어재활사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2부에서는 ‘언어재활 사례발표’와 ‘언어재활을 위한 교재·교구 전시’를 통해 언어장애에 대해 배우고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며, 3학년 학생들이 언어재활사로서 한발을 내딛기 위한 ‘언어재활사 선서식’을 가졌다. 박은실 학과장은 창의적 전문지식과 올바른 인성을 가진 언어재활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을 격려하며,



“이번 행사를 통해서 학문의 발전을 위해 서로 교류하며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보람된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유빈 기자 amy710703@naver.com

초등특수교육과,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초등특수교육과(학과장 박상희 교수)는 6월 20일(목) 대학본부 정보통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광주광역시청의 연구 용역을 받아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재호 교수)에서 진행하였다. 세미나에는 사회복지사, 평생교육사, 특수교사, 발달장애인센터 종사자 및 현장전문가 등 다양한 관련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6개월의 연구기간동안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다.

이세인 기자 seinee0202@naver.com

중등특수교육과, 2019학년도 교재교구개발 경진대회 개최 2019-1학기 미술교과 작품전시회 ‘표현의 일상展’ 개최

중등특수교육과(학과장 권충훈 교수)는 5월 30일(목) 교수학습지원센터와 대학일자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2019학년도 교재교구 개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중등특수교육과 교재교구개발 경진대회는 예비특수교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정 이해 및 수업매체 제작능력을 신장하기 위해 매년 연례적으로 기획 및 운영되는 행사이다. 대회 참가 재학생들은 소그룹 협동학습 형태로 직접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지도서) 분석 작업을 통해 수업활동에 적용할 교재교구들을 구안 및 제작하는 대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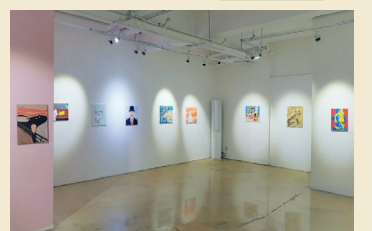
2019학년도 교재교구개발 경진대회는 중등특수교육과 3학년 학생 중심으로 총 13개 팀이 참가 신청하여, 1학기 동안(약 3개월 동안) 특수교육 현장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특수교육현장에 적용 가능한 교재교구들을 개발하였다. 특히, 2019학년도 교재교구개발 경진대회는 학과 출신 특수교사들(총 5명)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멘토링 지도를 받아, 개발한 교재교구의 수준이 높아졌다고 평가한다.

우리 대학의 중등특수교육과는 광주전남지역에 개설 인가된 유일한 중등특수교육과이다. 학과 개설 이후 총 65명의 임용시험 합격생을 배출하여 명문 특수교사 양성학과로 인정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특수교사 확대배치 정책에 따라, 학교현장 진출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과로 평가받고 있다.

6월 15일(토)부터 30일(일)까지 소소미술관(대표 김봉석, 전남 화순군 도곡 소재)에서 2019학년도 1학기 미술교과 작품전시회 ‘표현의 일상展’을 기획·개최했다. 소소미술관은 2014년 8월에 사립미술관으로 등록 및 개관한 이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작가들에게는 창작활동 공간을 지원하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번 중등특수교육과 미술교과 작품전시회를 후원했다.

‘표현의 일상展’은 2019학년도 1학기 미술교과교육 교과목으로 편성된 ‘표현기법’(담당 이난경 교수), ‘조소’(담당 이건용 겸임 교수)의 수업 결과 작품전시회이며, 참가대상자는 중등특수교육과 2,4학년 재학생이다. 6월 18일(화) 오후 13시 소소미술관에서 ‘예비 중등특수교사를 위한 미술관 수업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문형선(미술학박사, 소소미술관 학예실장) 화가의 미술교과 수업 운영의 현장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소소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작품전시회 공간을 지원하면서 예비특수교사로 성장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신선한 미술작품 전시를 지원하게 되어 지역 예술 전시기획자로서 뜻깊은 경험이 되었다”고 밝혔다. 권충훈 학과장은 “유능한 예비중등특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표의교과인 미술교과의 교육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유담 기자 jyd201800@naver.com



유튜브 크리에이터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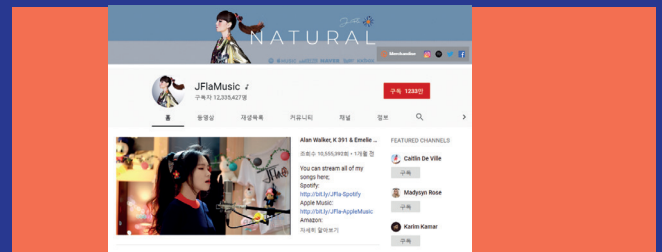
바야흐로 유튜브의 시대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고 연예인이나 배우, 각자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자신의 일상과 생각을 담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고 있다. 어린 학생들은 이제 TV보다 유튜브에서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어른들도 여러 유익한 영상을 보기 위해 유튜브를 본다.

유튜브는 전 세계 네티즌이 올리는 동영상 콘텐츠를 공유하는 웹사이트로, 2005년 2월에 채드 헐리, 스티브 첸, 자워드 카림이 공동으로 창립했다. 2006년에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유튜브는 점점 성장세에 올랐다. 국가별 현지화 서비스를 시작하여 다국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재까지 일부 서비스를 제외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다.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만들고 그 채널에 자신의 영상을 올리는 사람을 유튜버라고 부른다. 자신만의 영상을 만들어 올리기 때문에 크리에이터라고도 부른다. 유튜브가 1인 크리에이터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나자 유튜브에 자신의 채널을 시작하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다. 그렇다면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화제의 인물들은 누가 있을까? 유튜브 시대의 스타들을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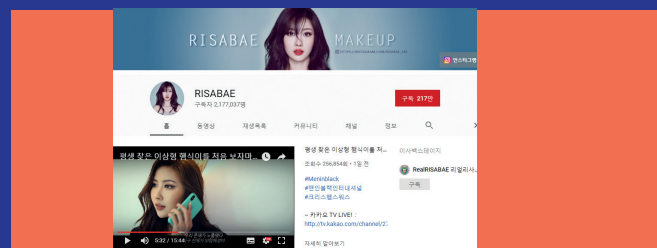
정유담 기자 jyd201800@naver.com

≡ J.FLA-노래 유튜버



유튜브 시장이 커짐에 따라 유튜버들을 구독하는 구독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유튜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버는 누구일까? 현재 12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싱어송라이터인 제이플라(J.FLA)이다. 제이플라는 한국 최초로 천만 구독자를 넘은 유튜버라고 한다. 제이플라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노래를 커버해 부르는 영상을 올리며 인기를 끌었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작곡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었다고 한다. 외국 가수인 비온세, 아델, 마룬5 등의 노래를 커버해 부르면서 인기를 크게 끌어 한국에서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가장 많은 조회수가 있는 영상은 2억 2천 조회수인 SHAPE OF YOU 영상이다. 제이플라 채널엔 꾸준히 여러 가수의 음악을 커버하여 부른 영상이 올라온다. 좋아하는 노래의 새로운 버전을 듣고 싶다면 제이플라의 채널을 방문해 보는 것이 어떨까?

≡ 이사배-뷰티 유튜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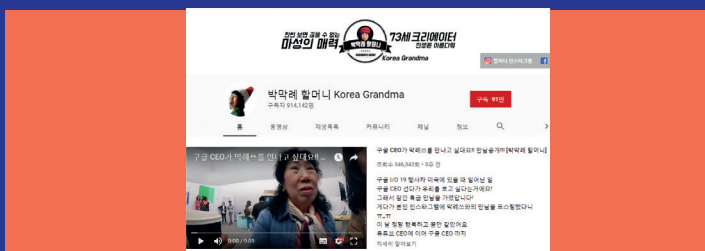


화장하는 과정이 콘텐츠가 될 수 있을까? 유튜브에선 가능하다. 유튜브의 인기 있는 카테고리 중 하나인 뷰티 계열의 유튜버 이사배를 소개한다. 이사배 채널은 2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채널이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부터 메이크업 관련하여 일하다가 2015년에 개인방송을 시작했다고 한다.

통통 튀고 귀에 쏙 들어오는 목소리 톤으로 뷰티와 관련된 영상을 올린다. 이사배 채널에는 계절을 콘셉트로 잡고 화장을 하거나, 유명한 연예인이 했던 화장, 누군가와 비슷하게 보이는 화장, 패션을 주제로 영상을 찍는 등 여러 가지의 영상이 올라온다. 화장하는 영상에는 어떤 화장품을, 어떻게 쓰는지 자세히 알려주기 때문에 뷰티와 관련된 지식도 얻어갈 수 있다.

늘 하던 화장이 질리거나 새로운 화장을 해보고 싶을 때, 이사배 채널에서 원하는 화장을 배워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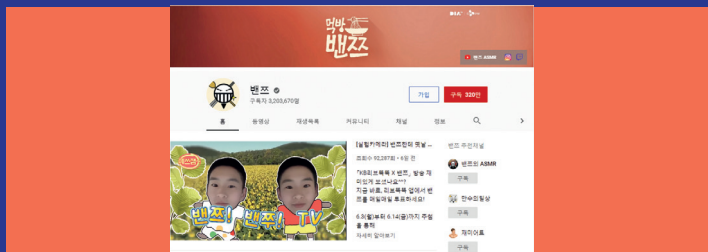
≡ 박막례 할머니-일상 유튜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에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일상 유튜버에 박막례 할머니가 떠오르고 있다. 코리아 그랜마라는 이름을 달고 시작한 박막례 할머니 채널은 70세가 넘어가는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한 화제의 인물이다. 치매를 주의하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듣고 박막례 할머니의 손녀가 영상 촬영을 제안하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한다. 영상촬영과 편집 등은 전부 손녀딸 김유라 PD가 담당하고 영상의 주인공은 박막례 할머니이다. 영상 <박막례 할머니의 욕나오는 호주 케언즈 여행기>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며 박막례 할머니 채널의 인기가 시작되었다. 현재 8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채널이다. 70대의 나이에 유튜브를 시작하여 인기를 끌고 있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외국 잡지인 보그에 소개되었고, 2018년도엔 구글의 초청으로 구글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2019년 올해에는 유튜브의 CEO 수전 워치스키가 박막례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한국을 찾아왔다. 전 세계가 70대 유튜버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에 박막례 할머니의 저서 <박막례, 이대로 죽을 순 없다>가 발간되기도 하였다. 나이가 많아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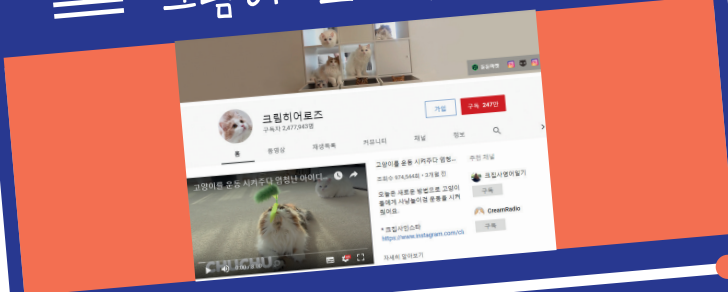
박막례 할머니 채널에는 일상 유튜브 채널인 만큼 박막례 할머니의 일상과 생활팁, 여행 등의 영상이 올라온다. 구수한 입담과 친근한 이미지로 만든 즐거운 영상이 가득하니 새롭게 구독하여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뽀빠-먹방 유튜버



음식을 먹는 영상을 올리는 먹방 유튜버들도 수가 점점 늘고 있다. 내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음식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이다. 그런 먹방 유튜버 중에서 뽀빠라는 유튜버를 소개한다. 뽀빠는 32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이다. 게임방송을 올리는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다가 유튜브로 옮긴 후 채널을 개설하였다. 먹방 유튜버 중에는 음식을 게걸스럽게 혹은 더럽게 먹는 유튜버가 많으나 뽀빠는 깔끔하고 좋은 방송매너를 가지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음식점에서 점보라맨, 대왕 돈까스 등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도전을 내거는 음식점들이 있다. 유튜버 뽀빠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는 영상을 촬영해 올리거나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는 영상을 올리는 등 다양한 먹방 영상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는 게임을 하는 영상을 올리거나 빨리 먹기, 신제품 먹기 등의 영상도 올라온다고 한다. 누군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영상을 보고 싶다면 뽀빠를 구독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이다.

≡ 크림 히어로즈-반려동물 유튜버



최근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다. 그러한 흐름에 맞춰 반려동물의 영상을 촬영해서 올리는 반려동물 유튜버도 많다. 이번에 소개할 채널은 크림 히어로즈이다. 크림 히어로즈는 7마리의 고양이들이 주인공으로 수많은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채널이다.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시작한 크림 히어로즈는 2017년에 유튜브로 활동지를 옮겼다. 반려동물 채널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이 채널은 고양이들을 캐릭터화하여 제품을 만든 가방이나 우산 등 굿즈가 나오기도 했다. 영상은 고양이들을 키우는 집사가 해설로 상황을 설명하거나 역할극 등을 하며 고양이들 촬영한 영상이 주를 이룬다. 2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이 채널은 고양이 제품의 리뷰나 간식 주는 영상, 병원 가는 영상, 목욕하는 영상 등의 여러 영상을 올린다.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나 좋은 고양이용품들을 추천하기도 해서 애완동물에 관련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방학 동안 귀여운 고양이 7마리의 일상과 지내고 싶다면 크림 히어로즈를 검색해 보자!

바르게 알면 더 재미있는 역사 돋보기④

제국에서 민국으로 하

이지훈

광주광역시 친일잔재조사위원회 연구원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문화국장

한일병탄으로 오백년 왕조는 무너졌고 민주주의를 꿈꾸던 백성들은 식민지 노예로 전락해버렸다. 격동기를 이끌던 민족 지도자들은 민족을 정면으로 배신한 친일파의 수장이 되기도 했고, 또는 그들과는 반대로 국내외를 넘나들며 세계 각지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독립지사가 되기도 했다. 만민공동회의 무산으로 민주주의의 꿈이 허물어진 지 20년째 되던 1919년 역사는 일대 격동기로 접어들고 있었다.

1919년 1월 21일 고종 황제가 갑자기 승하했다.

영친왕의 결혼식을 나흘 앞두고 의문의 죽음을 당한 고종에 대해 수많은 사람들이 독살설을 제기했다. 궁내부 대신이었던 친일파 윤덕영의 시해음모설, 수상한 시신 상태, 식혜와 음료를 제공했던 두 궁녀의 잇따른 죽음 등 고종 독살 의혹들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까지 완벽한 증거로 인정받진 못하고 있다. 아직 순종 황제가 살아있었지만 오백년 왕조의 실질적인 마지막 군주의 죽음이었다. 민심은 크게 요동쳤고 덕분에 꺼져갔던 민족운동에 대한 불씨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919년 1월 28일.

1차 세계대전 후 새로운 평화체제를 논의하고자 파리강화회의가 열렸다.

파리강화회의에선 정전 후 수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인정받아 세계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도 이 회의에 참여하고자 상해 신한청년당의 대표 자격으로 김규식 등이 참석했다. 김규식은 미국 유학과 수재였으며 외국어에 능통해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엘리트였다.

김규식은 아인슈타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 신문에 실릴 정도로 대내외 활동을 강화하며 동분서주했다. 하지만 그의 파리 외교전은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의 눈물 겨운 외교전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국적이 없으니 여권 발급도 힘들었고 해외 각국을 거쳐 갈 때마다 제약이 따랐다. 국가적으로도 독립을 인정받기엔 영토도 없었고 하다못해 명함에 쓸 나라 이름조차 없었다. 가까스로 파리 한 골목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파리위원회' 사무실을 내고 독립외교전을 재개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파리강화회의의 참여국 중엔 연합국 자격의 일본이 있었던 것이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에서 승전하고 1차 세계대전마저 연합승전국의 자격을 얻어 세계 제국주의 열강 안으로 진입한 일본의 위상은 대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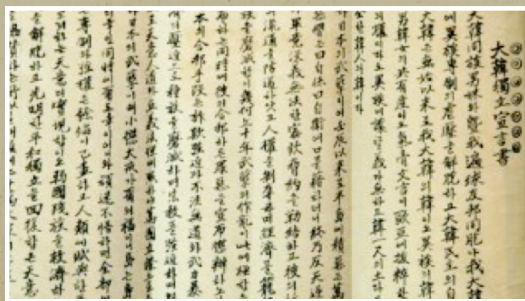
김규식은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지만 일본이 쳐놓은 외교 장벽을 넘기엔 역부족이었다.

1919년 2월 1일

정식 국호도 없이 독립국을 외치던 애잔한 나라.

새로운 근대 국가 탄생이 절실하던 때에 상해 신한청년당에서 독립선언서가 선포되었다.

신한청년당은 케말 파샤의 터키 청년당을 모방해 젊은 청년 위주로 1918년 조직되었으며 새로운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 여운형 김규식 장덕수 김철 이광수 등 유학파들의 의기투합으로 만들어진 민족 청년단이었다.



2월 1일은 음력 설날이었으며 3.1 기미 독립선언문과 구별을 위해 무오 독립선언서로도 불린다. 이날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조소앙이 기초하였다. 발표 후 조소앙은 일본 도쿄로 건너가, 유학생인 백관수, 이광수 등을 지도하여 2·8 독립 선언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 한복판 한인 YMCA회관에서 한인 유학생들 600여 명이 일제 침략을 규탄하고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언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도쿄 유학생 조선청년 독립단 최팔용, 김마리아, 송계백, 김상덕 등이 주도했다. 이광수가 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백관수가 낭독했다.

뒤늦게 안 일경들이 현장을 덮쳐 60여 명이 검거되었으나 2월 내내 도쿄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은 그치지 않았다. 이 중 송계백은 모자에, 김마리아는 기모노에 독립선언서를 숨기고 국내 잡입에 성공, 민족지도자들에게 청년들의 독립의지를 공표하니 이가 곧 3.1 혁명의 뿌리가 된다.



1919년 3월 1일

3.1 만세운동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참여해서 거국적으로 일어났다. 최남선이 기초한 기미독립선언문이 봄 내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갔다. 국가적 재난 때마다 불굴의 의지로 일어났던 민족운동 중 최대 거사이자 혁명이었다. 나이, 신분, 성별, 지역을 뛰어넘어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뛰쳐나와 만세를 외쳤다.

일제의 압제에 반발해 거족적으로 일어난 민족운동의 성격이었지만 그 저변에는 만민공동회에서 이루지 못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도 숨길 수 없었다. 독립국의 자주민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곧 근대 민주주의 국가의 주권 국민으로서 자격을 세계 만방에 고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1919년 4월 11일 중국 상해

청년 학생의 힘으로 시작된 독립운동의 불씨가 거족적으로 옮겨 붙으면서 유사 이래 최초로 국민이 주권을 가진 근대 민주주의 국가가 중국 상해에서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제 민 국 에 서 로

대한민국 임시헌장(大韓民國 臨時憲章)

“신인일치로 중외 협응하여 한성에서 기의한 지 30유여 일(有餘日)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 주에 광복하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 완전한 자주독립의 복리로 아 자손 여민(黎民)에게 세전(世傳)키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노라”

-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 제 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차를 통치함.
-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 귀천 급 빈부의 계급이 무하고 일체 평등임.
- 제 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신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급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 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 자격이 유한 자는 선거권 급 피선거권이 유함.
-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
- 제 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진하야 인류의 문화 급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함.
- 제 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 제 9조 생명형 신체형 급 공창제를 전폐함.
- 제 10조 임시정부는 국토회복후 만일개년내에 국회를 소집함.

블라디보스톡의 대한국민의회와 한성임시정부가 상해 임시정부로 통합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한 것이다. 군주 중심이던 국가 체제가 국민 중심이 되면서 계급, 성별, 지위, 지역, 혈연, 학력을 떠나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는 근대 민주주의 국가체제가 완비되었다. 전제통치제는 민주공화제로 바뀌었고 국민들의 대의 정치기관인 임시의정원이 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출범과 동시에 임시정부헌장이 선포되었다.

국권피탈기에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를 거치면서 싹튼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3.1혁명을 맞아 비로소 대한민국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제국에서 민국으로 오는 동안 수많은 민초들이 희생당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청년 학생들이었다. 신한청년단 대표 자격으로 구구만리 파리에서 대한민국 독립국을 외치고 다녔던 김규식의 목소리와 도쿄 한복판 YMCA에서 조선이 독립국임을 선포했던 유학생들의 목소리,

그리고 3월 1일 탑골공원에서 아무도 나서지 않자 당당히 나서 기미 독립선언문을 읽어가던 정재용의 목소리. 모두 시대를 이끌어가던 청년 학생들의 목소리였다. 역사적으로 보면 청년 학생들의 열정 없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시작할 수도 없었던 얘기다. (*)

즉흥으로 떠난

일본 후쿠오카 여행

작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나는 친구랑 둘이서 후쿠오카 여행을 다녀왔다. 여행 갔다 온 후 엄마가 “나도 가고 싶다”라는 한마디에 나는 “가자, 떠나자”라고 말을 했고, 엄마와 남동생과 함께 일본여행을 갔다. 우리는 비행기보다 배를 타고 가보는 건 어떨까 해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출발했다. 우리의 일정은 4박5일 이었지만 배를 타면 그 날 당일 밤 10시에 출발하여 다음날 아침 7시부터 하선을 하여,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오는 거랑 똑같은 일정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 첫 일정은 온천을 가는 거였다. 일본여행을 자주 가보았지만 제대로 된 온천은 한 번도 해본 기억이 없어서 이번 여행에서는 온천을 제대로 즐겨보자 하고 먼저 숙소에서 짐을 풀고 필요한 것들만 챙겨 온천으로 가는 무료셔틀 버스를 타러 시간대를 맞춰서 가까운 정류장을 찾았다. 정류장 가는 길에 버스 시간표를 봤는데 지금 당장의 버스는 없었고 한 시간 뒤의 버스가 있었다.

시간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밥을 먹으러 갔다. 밥을 뭐를 먹을까 고민하다가 엄마가 그냥 눈앞에 보이는 돈가스 가게로 들어가기에 따라 들어가 메뉴판에 있는 그림만 보고 음식을 시켰다. 그 결과 진짜로 맛있는 돈가스가 나왔고 두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돈가스도 먹었다. 그 후 우리 시간을 맞춰 버스를 타고 온천을 하러 갔다. 우리가 간 온천은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온천이었고, 관광객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온천이었다. 이렇게 온천을 다녀온 후 다시 우리 하카타역 앞에 내려주는 셔틀 버스를 타고 편의점에서 저녁먹거리와 맥주를 사서 숙소로 돌아와 첫날을 마무리 했다.

둘째 날에는 일일 버스 투어를 예약해놔서 버스를 타고 하루를 투어하는 형태의 패키지이다.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객들도 다 같이 한 버스를 타고 가이드 분께서 이런저런 설명과 재미난 이야기를 나누면서 후쿠오카의 주요 관광지를 하루코스로 관광을 한다. 쯤 먼저 간 곳은 하카타역에서 버스로 15~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다자 이후 텐만구’라는 곳이다. 여기에는 유명한 장소가 한군데가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스타벅스인데 2020년 도쿄 올림픽 디자인을 한 사람이 만든 스타벅스이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학문의 신이라고 불리는 소 동상이 있는데 여기에선 이 소를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좋은 일만 가득 생긴다는 전설이 있어 모두들 줄을 서서 그 소를 만지고 사진도 찍는다.

물론 나와 엄마 남동생도 만지고 왔다. 그 다음 간 곳은 유후인이라는 온천마을이다. 토토로 마을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다자이후에서 유후인까지 한 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도착했다. 여기서 점심해결도 해야 해서 각자 자유 시간 3시간이 주어진다. 그럼 각자 시간을 보내고 시간이 되면 버스로 모이면 된다.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 선택한 식당은 우동, 덮밥 등 많은 종류의 음식을 파는 곳이었다. 일찍 도착했다고 생각 했는데 대기 줄이 있어서 대기하다가 들어가 밥을 먹고 나왔다. 그리고 또 빠져서 안 될 먹거리가 있다, 바로 ‘금상고로케’인데 일본의 고로케 대회 나갔다가 금상을 타서 금상고로케라 지었다고 한다. 고로케는 정말 맛있었다. 금상 탈 만하구나 싶은 맛이였다. 유후인에서 3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다음으로 간 곳은 벳푸였다. 벳푸 도깨비지옥온천이라고 유후인보다 더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 벳푸이다. 도깨비 지옥온천은 5개의 온천이 있고 그 온천수에 삶은 계란과 라무네 사이타도 팔고 족욕을 할 수 있는 곳도 마련이 되어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다 보면 담배쇼도 보여준다. 이렇게 마지막 일정까지 끝나면 버스를 타고 벳푸에서 하카타역까지 3시간정도 걸리며 도착하면 저녁 7시가 된다. 하카타역에 도착해서 우리 저녁으로 100엔 스키집에 가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저녁을 먹고 우리 캐널시티로 가서 쇼핑도 하고 구경하다가 숙소로 돌아와 여행 둘째 날도 그렇게 마무리 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자 후쿠오카에서의 마지막 날이었다. 마지막 날은 딱히 정해 놓은 일정이 없기 때문에 여유 있게 준비를 하고 어디를 갈지 고민 하던 와중에 동생이 옷을 사고 싶다고 일본 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서 백화점으로 갔다. 백화점은 텐진에 위치하고 있고 동생의 옷을 사고 바로 옆 ‘다이묘거리’를 구경하면서 돌아다녔다. 다이묘 거리는 쇼핑하고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최적화 된 장소이다. 열심히 구경하고 쇼핑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지난 시간이었다.

엄마가 “어쩐지 배가 슬슬 곱프더라”며 우리 식당을 어디로 갈지 찾았다. 엄마는 오므라이스 같은걸 먹고 싶다고 했었고 나는 함바그를 먹고 싶어 했다. 결국엔 엄마가 원하던 오므라이스 식당이 바로 앞에 있어서 들어가 음식을 시켜 먹고 나왔다. 텐진에서 다시 하카타 역으로 이동을 했다. 일본은 교통비가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 걸을 수 있는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구석구석 일본의 거리 감성을 느껴보는걸 나는 추천한다. 텐진에서 하카타역까지 걸어서 20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쉬다가도 정말로 힐링하는 기분이라 정말 좋았다. 하카타 역으로 가서 또 우리 캐널시티로 가서 어제 구경 다 못한 곳들을 구경 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비가 와서 편의점에서 급히 우산을 사서 쓰고 다녔다.

엄마는 마지막 날 저녁은 좀 특별한 걸 먹자고 해서 알아보던 와중 엄마 지인분이 캐널시티 근처에 야끼니꾸 무한리필 집이 있다며, 가격대비 맛도 좋다고 추천을 받아서 거기를 찾았다. 생각 외로 고기의 질도 좋았고 맛도 좋았다. 우리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와 숙소로 가서 여행의 마지막 밤을 보냈다. 다음날은 귀국을 하는 날이다. 12시에 배가 출발하여 오후 6시 30분에 부산항에 도착한다. 이번 여행은 정말 즉흥적인 여행이었고, 내가 부산을 떠나 광주에 오기 전 여행이라 더 의미가 있었다. 많은 여행들 중에 이번 여행은 계속해서 생각나고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 같다. 양유빈 기자 amy710703@naver.com



양유빈 기자 amy710703@naver.com





5월의 축제?

광주의 5월에 축제가 열리지 않는다. 봄이 오고 날이 풀리면 다른 지역은 축제로 떠들썩하지만 광주는 축제를 열지 않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났던 달이기 때문이다. 올해로 5·18 민주화운동도 39주년이 되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39년이다. 여전히 5·18을 떠올리면 가슴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대학의 축제는 9월에 열렸다. 그런데 올해는 9월에 하던 축제를 5월 청바지데이와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사실이 학우들에게 전달되자 많은 학우들이 분노하였다. 광주의 5월에 어떻게 축제를 열 수 있는지에 대한 분노였다. 축제의 시행 날짜에 관련하여 많은 의견이 오갔다. 이 논란은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인 에브리타임에서 떠들썩하게 진행되었다. 학우들의 입장은 두 가지로 나뉘었다.

첫 번째 의견은 어떻게 광주의 5월에 축제를 열 수 있느냐 하는 입장이다.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시민이라면 빠지지 않고 교육받는 아주 중요한 역사이다. 부모님 세대에서는 실제로 민주항쟁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다. 광주에서 5월은 특히나 중요한 역사적인 달이고 동시에 아픈 상처가 가득한 날이다. 그런 광주에서 5월에 웃고 떠들며 축제를 여는 것은 상처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일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규명은 끝나지 않았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확한 진상규명도,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시국에 축제를 여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우들도 있었다. 의견을 주장하는 학우들 중엔 실제로 가족이 민주항쟁 당시에 피해의 상처가 남아있다고 경험을 이야기하는 학우들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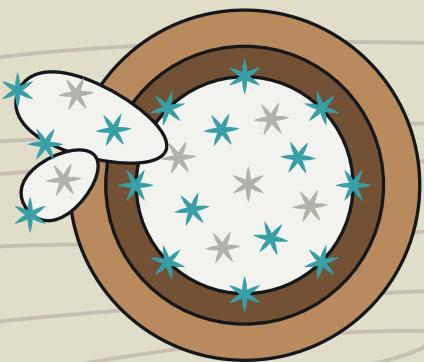
이렇게 많은 학우들이 분노하고 이야기 했는데도 축제를 진행하겠다는 차라리 축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보이콧 선언을 하는 학우들도 생겨났다. 그들은 광주의 대학이 5월에 축제를 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였다.

5월에 축제를 여는 것에 대해 불만의 의견을 이야기 한 학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의 의견을 가진 학우도 있었다. 두 번째 의견은 5월에 축제를 연다고 5·18 민주항쟁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다. 5월은 5·18 민주화운동 외에도 많은 날들이 있다. 어버이날, 어린이날, 성년의 날, 스승의 날 등 의미 있는 날들이 많다. 우리 대학은 꾸준히 5월에 성년의 날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청바지데이를 열어왔다. 축제라고 이름붙이지만 않았을 뿐 꾸준히 행사는 있어왔고 그런 축제들이 있는 동안 민주항쟁의 의미가 퇴색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잊지 않는다면 굳이 5월을 영원히 슬퍼하며 보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다. 몇몇 학우들은 축제에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만 참여하자는 의견을 내비쳤다. 분노하며 화를 냈던 학우들에게 학교에 건의를 넣어서 의견을 피력해보라고 조언해주는 온건한 의견도 보였다.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을 가진 학우들은 서로의 의견을 주장하며 축제가 시작하기 몇 주 전부터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였다. 축제는 결국 5월 21일, 청바지데이와 동시에 열렸다. 축제 당일 날까지도 몇몇 학우들은 논란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나누었던 이야기를 축제평가에 남기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으로 논란은 막을 내렸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써 필요한 상황에 의견을 내고, 자신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듣고 나누며 그 문제점을 해결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일은 어떤 순간이나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당장의 의견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 논리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내는 경험도 앞으로의 우리 삶에 중요하게 적용될 것이다. 우리 대학의 학우들이 이번 축제시기와 관련하여 의견을 낸 것이 자신의 성장을 이루어 내는 경험이 되었길 바란다.



정유담 기자
jyd201800@naver.com

무등산

바로 알기



1,176.8m의 높이, 북위 35° 03' 06"~35° 12' 59", 동경 126° 53' 41"~127° 05' 01"에 위치한다. 광주광역시 동쪽과 담양군, 화순군에 걸쳐 우뚝 솟아 있는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으로 동서남북 어디에서 조망을 하여도 산줄기와 골짜기가 뚜렷하지 않은 둥근 모습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의 진산이자 호남정맥의 중심 산줄기로 2013년 3월, 우리나라의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무등산은 '비할 데 없이 높고 큰 산' 또는 '등급을 매길 수 없을 정도의 고귀한 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광주의 옛 이름을 무진주 또는 무주라 해서 이 고을의 진산인 무등산도 일찍이 무진악 또는 무악으로 불렸다. 산정상엔 천왕봉, 지왕봉, 인왕봉 등 3개의 암봉으로 이뤄져 있다. 정상을 중심으로 여러 곳에 규봉, 입석대, 서석대 등의 이름난 기암괴석과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등의 사찰이 자리 잡고 있다. 1972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산 아래에는 각종 놀이시설 및 편의시설이 있다. 옛날 임금님의 진상품이었던 무등산수박과 뛰어난 향을 가진 춘설차 등도 무등산의 매력이다. 이밖에 계절적으로 가을에는 규봉암의 단풍과 장불재, 백마능선의 억새풀이 절경을 이루며, 겨울에는 설화와 빙화가 일품이다. 또, 봄에는 진달래, 여름에는 참나리, 가을에는 단풍과 억새, 겨울에는 설경 등 사계절 생태 경관이 뚜렷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수달, 하늘 다람쥐, 으름난초 등이 서식하는 우수한 생태계를 자랑한다.



무등산은 지리산에서 영암 월출산, 해남의 두륜산으로 이어지는 소백산맥의 북서측 연변부에 속하는 장대한 산지로, 백악기의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체의 하나이다. 무등산의 산지사면은 밋밋한 곡부를 형성하여 산체의 평면형태가 굴곡이 없이 완만한 토산형상을 띤다. 무등산에는 수평, 수직으로 잘 발달되어 있는데, 특히 서석대와 입석대에는 10여m의 전형적인 주상절리들이 특징적으로 발달하여 빼어난 지형경관을 이루고 있다.

자기만의 싸움

대학교에 다닌 지 3개월이 지나고 익숙한 일상에 지루함을 느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았다. 그 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이 바로 등산이었다. 평소 운동하기를 좋아하던 나에게 딱 맞는 활동이었다. 학교에서 항상 창문으로 보던 무등산이 딱 떠올랐다. 6월 2일 일요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조선대학교 정문에서 남자친구를 만나 증심사로 버스를 타고 출발하였다. 버스 안에는 등산복 차림의 어른들이 많이 계셨고 잘 모르는 우리는 따라 내려오니 무등산이 바로 보였다.

우리의 목표는 서석대였고 등산 코스를 찾아보았더니 새인봉 - 중머리재 - 중봉 - 서석대 였다. 이 날 날씨가 너무 맑아 날씨 감상하며 새인봉을 향해 걸었다. 걷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그런지 어렵지 않았고 숲속이라 덥지도 않아 딱 좋았다. 오고 가는 사람들끼리 인사하며 정도 나누며 오랜만에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가다보니 하늘 다람쥐도 볼 수 있었다. 분명 멸종위기동물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계속 올라가다 보니 점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아침 일찍 빈속에 온 거라서 배가 무척 고파서 남자친구가 싸온 유부초밥 도시락이 너무 먹고 싶었지만, 중머리재에 올라가서 먹기로 하였기 때문에 꼭 참고 열심히 올라갔다. 점점 길이 험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하였다. 배도 아프고 덥기도 해서 포기하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해본 거 끝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버텼다. 2~3번 정도 앉았다 가면서 쉬어 가니 중머리재에 도착하였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시락을 한 입 먹으니 정말 '꿀맛'이었다. 잠시나마 천국을 느꼈다.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쳐다보며 부러워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빠르게 도시락을 먹고 다시 출발하였다.



등산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나머지 물도 없이 이온음료 2개뿐이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올라가야 정상인지 궁금하여 하산하시는 아저씨 두 분께 얼마나 남았는지 여쭙어 보았다. 그랬더니 1시간 30분이라고 말해주셨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물은 많냐?'고 하시면서 이온음료 2개도 다 먹은 것을 보고 시원한 생수 2병을 주셨다. 등산할 때 가장 중요한 물을 그렇게 두병이나 주시는 것을 보고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는 생각을 하며 감동받았다.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들으니 더 이상 포기 할 수 없었다 싶어서 마지막까지 남은 힘을 다해 정상으로 향했다. 너무 덥고 힘들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을 것만 같았지만 포기 하지 않고 서석대까지 도착하였다.

무등산 정상까지 올라가서 전경을 보니 광주가 한 눈에 다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보니 지금까지 힘들게 올라왔던 모습이 다 잊히고 괜히 뿌듯하고 스스로에게 감동받았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많았지만 끝까지 올라온 나의 모습이 대견하고 옆에서 응원해준 남자친구에게도 고맙웠다. 등산을 하며 지금까지 쌓인 스트레스도 풀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사이가 더 좋아졌다. 등산은 생각했던 것보단 많이 힘들었지만 끝까지 해낸 모습을 보니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졌다. 등산을 막상 해보니 지금까지 제대로 된 등산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등산을 좋아하고 즐겨하는 지 알 것만 같았다. 답답하거나 익숙한 삶에서 살고 있는 이 대학생들에게 등산이라는 새로운 취미를 추천해주고 싶다. **이세인 기자** seinee0202@naver.com

필기구에 담긴 인문人文의 향종 ②

* 오로라 볼펜 교황 프란치스코
어머님의 유품...

“2014년 10월 초 구매했어요.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성경필사 하실 때 힘이 되길 바라며 선물해 드린 볼펜인데,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시길래 마음에 안드시나보다.. 했어요. 얼마 전 돌아가신 뒤 유품정리하다 서랍 한켠에 모셔둔 펜을 발견했는데 고장이 나 있네요. 펜을 돌려도 심이 나오질 않아요. 선물한 제가 속상해할까봐 말씀 안 하셨나 봅니다. 제겐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 유품이예요. 수리해 온전한 상태로 간직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케이스에 곱게 담긴 볼펜과 편지 한 장이 제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몇 줄 되지 않았지만, 가볍지 않은 내용이라 술술 읽히지가 않았습니다. 케이스를 열고 펜을 손에 쥐었습니다. 펜을 손으로 매만지면, 그간 깊이 잠들었던 이야기가 하늘하늘 물풀처럼 녹아납니다. 마음으로 듣는 시간입니다.①

르네상스의 나라, 그리고 인쇄와 공방 문화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이탈리아는 1919년에 만년필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해에 이탈리아 북부의 토리노에서 오로라(Aurora)라는 이름으로 필기구 제조업체가 탄생하였습니다. 오로라 만년필은 특유의 부드러운 필감 위에 사각거림을 엮은 독특한 손맛으로 두터운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313년 콘스탄티누스(Constantinus)황제의 개종으로 기독교 교회의 후원이 시작되었고, 로마인들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중세와 근대를 거치며 기독교는 구교와 다수의 신교로 나뉘었지만 이탈리아는 가톨릭(구교)을 국교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내에서 테베레 강을 따라 걷다보면 건너편에 바티칸(Città del Vaticano)이 보입니다. 바티칸을 품고 있는 로마는 압도적인 수의 교황을 배출하였는데 역대 교황 210명이 이탈리아, 그 중에서 99명이 로마 출신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교황의 탄생을 기념하는 펜을 만드는 것은 어쩌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오로라의 소명일지도 모릅니다.

오로라 볼펜 ‘교황 프란치스코(Pope Francis)’는 2013년 추대된 266대 교황의 오마주입니다. 그런 의미로 최대한 장식을 줄여서 소박하고 단순하게 표현했습니다. 청빈한 삶을 몸소 실천하는 교황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②

대다수의 교황이 이탈리아 출신이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푸른 대리석에서 모티브를 따온 레진(resin) 소재의 베럴(barrel)은 교황의 출생국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면서 펜 한자루에 하늘과 땅을 온전히 담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아 더 눈에 들어오는 은은함도 엿보입니다. 펜 상단부엔 교황을 상징하는 문장을 넣어 의미를 더했습니다.③

가장 까다로운 볼펜 수리는 이 펜처럼 내부에서 잉크가 터졌을 때입니다. 만년필 잉크는 수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오래 방치된 펜이라도 분해해서 세척하면 제 기능을 온전하게 살려낼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유성인 볼펜심은 경우가 다릅니다. 끈적끈적한 유성잉크가 일단 터지면 세밀한 메커니즘 틈새 사이사이에 스며든 상태로 서서히 굳어갑니다. 아무리 꼼꼼히 세척해도 미세하게 침투한 잉크를 완벽히 제거하기 힘듭니다. 설령 많은 시간을 들여 요행히 살려낸다고 해도, 소요된 수리시간을 비용으로 환산하면 차라리 새 부속을 교체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겁니다. 효율 측면에서만 볼 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펜은 이미 몇 년 전 단종된 모델이라 국내에 해당부속이 없습니다. 이탈리아 본사로 보내야 수리가 가능 여부와 비용을 알 수 있고, 어쩔 수없이 꽤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④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생각이 깊어갑니다.

펜과 함께 보내온 몇 줄 안되는 편지를 또 꺼내어 읽었습니다. 선물한 딸이 속상해 할까 고장난 펜을 숨긴 어머니의 마음을 알 것만 같았습니다. 일단 시도해보고 도저히 길이 안보이면 그때 하늘길을 통해 제조사에 보내기로 합니다

방향이 잡혔습니다. 일단 펜을 분해합니다. 전용 세척액과 부드러운 용을 사용해 딱딱하게 굳은 잉크는 떼어내고, 슬러지처럼 끈적하게 달라붙은 잉크는 녹여냅니다. 틈새 사이사이는 면봉에 약품을 묻혀 닦아줍니다. 양손이 약품으로 범벅이라 사진도 몇 장 없습니다.⑤⑥





김덕래
펜샵코리아 차장

펜을 손볼 땐 그 펜의 가격도, 내력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상의 컨디션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란 생각만으로 이미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시간이 중요치 않게 됩니다. 요행히 예상보다 빨리 손봐지면 웬지 모를 아쉬운 마음에 계속 매만지게 되고, 지금처럼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경우에는 또 그새 정이 들어 쉽게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 펜 컨디션은 점점 더 좋아집니다. 서두름을 빼고 시간을 더해 공(悭)을 들이면 빛이 납니다.

잉크 제거작업 후 충분히 말린 다음, 작동여부를 체크합니다. “좋습니다!”

기능적인 문제점이 해결되니이번엔 외형이 눈에 들어옵니다. 새 옷을 입으면 낡은 신발이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처음에는 ‘그저 작동만 된다면, 쓸 수만 있게 된다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막상 해결하고나니 욕심이 생깁니다. 클립 안쪽, 캡 중결링 부위 등의 변색된 부분을 꼼꼼히 닦다 보니 어느새 광이 납니다. 만족스러움에 입꼬리가 자꾸 올라갑니다.⑦⑧

사실 이 펜에 유독 마음이 쓰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복이 많아 아직 저의 부모님은 곁에 계십니다. 하지만 연로한 두 분만 시골에 남기고 떠나온 불효자이기에 여든이 넘은 부모님이 늘 마음에 걸립니다.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작은 긍정 한조각 찾아내는 법을 가르쳐주신 내 어머니입니다. 손이 작아 부끄럽다는 막내아들에게 자신감을 주셨습니다. “큰 손이 힘은 잘 쓰지만, 손재주는 되려 작은 손이 더 있어. 넌 뭘 하든 잘 할거야. 엄마 말 믿어.”

목소리도 작고, 내성적인 성격이 창피하다는 말에도 “괜찮아. 넌 조용조용 남들 말 잘 들어주잖아. 또 착하니까 나중에 틀림없이 사람들이 알아줄 거야. 엄마 자식 중에 네가 제일 살가워서 좋아.”라고 응원하셨습니다.

항상 넘치도록 사랑을 준 어머니가 언제부터인지 조금씩 흐려져,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하고, 또 쉽게 잊어버리고, 밀도 끝도 없는 엉뚱한 소리로 아버지를 놀라게 하곤 합니다. 처음엔 그저 속상하기만 했고, 언제부터인가 안타까워지더니, 요즘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만큼 사랑으로 키워준 분이 나중에 내가 덜 후회하라고 돌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 싶어 더 자주 전화 드리고, 찾아뵙는 중입니다.

“정은씨, 오늘 뭐해? 아침은 먹었어요?”
“어이~ 아들! 전화해줘서 고마워. 아빠랑 산책하고 왔어. 내가 귀찮대도 운동해야 한다고 매일 가재. 좀 귀찮긴한데...그래도 괜찮아. 너희 아빠가 젊었을 땐 날 힘들게 하더니, 이제 집안일도 많이 해줘. 편하고 좋아. 너두 꼭 아침먹고 출근해. 사랑해 아들~”

언젠가 한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아들, 이 살기 힘든 세상에 태어나게 해 미안해. 그리고 열심히 살아줘서 고마워.”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릴 그렇게 해. 낱아줘 내가 고맙지. 이만큼 잘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 이후로는 해마다 엄마생일에는 ‘내 엄마라서 고마워요.’, 그리고 내 생일에는 ‘낱아줘서 고마워요.’라고 인사합니다. 그런 어머니가 겹쳐져 이 펜이 그저 단순한 필기도구, 그저 볼펜 한 자루로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펜과 함께 보내온 손편지에 대한 화답을 적어 수리가 끝난 고향 볼펜과 같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진심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감사를 전하는 그 마음을 알 것 같았습니다. 펜이 잘 고쳐져 내가 더 좋다고, 오래오래 잘 간직하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일요일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글쓰기카페에 저에게 보내는 편지를 포스팅해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의 반듯 반듯한 필체로 채워진 필사노트는 감동적이었습니다.⑨ 이런 적은 또 처음이라 몇 번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제가 보내드렸던 편지사진도 올라와있어 좀 민망하기도 했습니다.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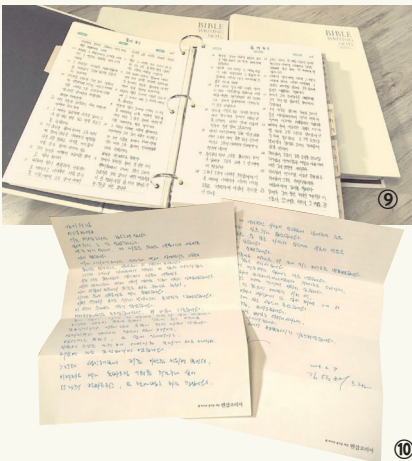
어머니에 대한 회상으로 시작해 제 이야기로 이어지던 편지 글은, 어머니 영전에 펜과 함께 놓여진 사진으로 맺어졌습니다. 사진 한켠에 놓인 제가 보내드린 편지를 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구나’ 싶어 저절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⑪

어머니가 성경을 옮겨 적을 때마다 요긴하게 쓴 볼펜입니다. 만년필로 필사하는 분들도 많지만,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는 관리가 보다 수월한 볼펜이 분명 나은 선택입니다.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에게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은 결단코 없었을 것입니다.

볼펜 한 자루가 시간을 타고 공간을 넘어, 두 분의 어머니와 두 명의 자식 사이에서 인연의 끈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람이 만들어 낸 펜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으로 받는 게 도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 보내온 편지에 대한 늦은 화답, 오늘에서야 보냅니다.

***오로라(AURORA)**

1919년 이탈리아 최초의 만년필 브랜드. 만년필 핵심인 펜촉을 100% 자체 생산. 부드러운면서도 사각거리는 독특한 필기감으로 잘 알려진, 올해로 100주년이 되는 필기구 생산업체.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을 수 있는 문화

김종욱 찾기

장르	뮤지컬	시간	평일(월~금): 14시, 17시, 20시
장소	대학로 컬처스페이스 엔유	주말(토, 일): 13시, 15시 10분, 17시 20분, 19시 30분	
기간	OPEN RUN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관람가	문의	02-766-7667

자유분방한 여자 주인공, 그녀가 어린 날 떠난 여행지, 인도에서 만난 한 사람. 그 사람은 '운명'이라는 이름과 '낭만'이라는 추억으로 오래도록 그녀의 마음에 새겨진 채 오랜 세월동안 간직되어 왔다. 직장을 잃고, 떠나 나온 현실에서 떠밀려다 시피 결혼을 하라는 아버지의 부추김 속에 '첫 사랑 찾기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펼쳐지는데 과연 사는 곳도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녀의 첫사랑을 찾을 수 있을까?

『김종욱찾기』는 2006년 초연이후, 관객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로맨틱 코미디 뮤지컬이다. 커플 선호도 1위, 다시보고 싶은 뮤지컬 1위인 110만 관객이 선택하였다. 뮤지컬은 시간과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의 이동 모두를 소화해 내기 위해 확실한 전달력이 필요하다. 조명, 사운드,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해 공간 활용을 아주 뛰어나게 하는 『김종욱찾기』이다. 몇 년 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썸은 이제 그만하고 사랑에 빠지고 싶은 솔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어 연애가 서툰 초보커플, 새로운 변화가 필요한 첫 만남의 설렘이 그리운 오래된 연인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남자친구나 남자사랑친구랑 한번 『김종욱찾기』를 보러 가는 건 어떨까? 이세인 기자 seinee0202@naver.com

10년 전 이달의 음악

이승기-결혼해줄래

장르 댄스
작사 황성진, 김도훈
작곡 김도훈, 이상호
발매 2009.6.18.



예능과 드라마, 가요계까지 평정하는 방송계 3관왕인 이승기는 예능 '1박 2일', 드라마 '찬란한 유산'에서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그는 본 직업인 가수로 돌아와 『결혼해줄래』를 발매 하였다. 2009년 여름, 대한민국 전역에 로맨틱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다. 여성 팬들에겐 달콤한 사랑에 대한 설렘을, 남성 팬들에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프로포즈를 대신 할 수 있는 낭만적인 여름을 선사해 주었다.

이승기의 디지털 싱글곡 『결혼해줄래』는 발매부터 지금까지 축가 노래 또는 청혼 노래로 많이 알려져 있다. '하기 힘든 말'과 '입모양', '아직 못다한 이야기'로 이미 호흡을 맞췄던 히트 작곡가 김도훈이 만든 밝고 경쾌한 곡으로 데뷔 이후 발라드 위주의 노래만 선보여 왔던 이승기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기대를 받았다.

달달한 가사와 이승기의 목소리에 당장이라도 결혼하겠다고 대답해야 할 것만 같은 곡. 이런 노래를 듣고 거절하는 여자가 있을까? 높은 음이 많지 않아 무난하게 부를 수 있기에 주위 사람 중 축가로 고민하고 있다면 이 노래를 추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세인 기자 seinee0202@naver.com

‘책 읽어주는 여자’^⑫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어른이 되어보니 세상은 냉담한 곳이었다.” 저자 김수현은 책을 펴내면서 이런 말을 했다. 부조리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불필요할 정도로 서로에게 선을 긋고, 평범한 이들과의 차이가 있으면 차별과 멸시를 즐긴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철저한 갑과 을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이토록 발버둥 치며 살고 있는 세상이다.

이 책은 우리가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말해준다. 돈 많고 잘나가는 타인의 SNS를 훑어보며 비참해질 필요 없고, 스스로에게 변명하고 모두에게 이해받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불안하다고 무작정 열심히 할 필요 없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말라고 응원한다. 인생의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더 이상 상처받지 말고,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 나답게 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책은 내가 누구인지 고민할 시간조차 없는 현대인, 그리고 이제 막 어른의 세계로 들어온 20살의 청년들에게 '나'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선물하며, 남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살 수 있도록, 길을 잃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 어른이 되어서도 '나'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양유빈 기자 amy710703@naver.com

저자 김수현
출판사 마음의 숲, 2016



이제 여름이야. 우리 같이 바캉스 갈래?

It's summer now. Do you want to go to vacation together?

现在是夏天。我们一起去度假吗?
xiànzài shì xiàtiān。wǒmen yìqǐ qù dùjiǎ ma?

もう夏だね。私たち一緒にバカンス行くの?

C'est l'été. Tu veux aller en vacances avec nous ?

조현서 기자 jj5422@naver.com

고사성어

枯魚之肆

고어지사

마를 고, 물고기 어, 어조사 지, 가게 사

목마른 물고기의 어물전이라는 말로 매우 곤궁한 처지를 뜻한다. 『장자』 「외물(外物)」편에 나오는 말이다. 장자는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하루는 식량이 떨어져 감하후(監河侯)라는 이에게 꾸러 갔는데 감하후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내가 곧 세금을 거두어들일 텐데 그런다음에 300금금을 빌려 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장 먹을 게 없는 장자는 그 말에 화가 치밀어 이런 비유를 들었다.

“제가 어제 오는데 중도에 절 부르는 게 있었습니다. 전 수레바퀴자국에 있는 붓어를 보았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붕어야! 넌 어찌 이렇게 됐느냐?’ 그 붓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래 동해에 있는 신하인데 제게 물 한 통만 가져다가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 내가 곧 남쪽의 오나라와 월나라 땅에 놀러 가는데, 그곳에는 물이 많으니 물을 가져와 너를 구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붓어는 화를 내며 ‘그게 가능합니까? 지금 내게는 물 한 통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말하면 일찌감치 나를 어물전에 가서 찾는 게 더 나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조 김원중, 『고사성어대사전』, 민음사(2007) 이세인 기자 seinee0202@naver.com



어등 자유게시판



나예진(미용과학과 1)

20살이 된다는 거 자체가 나에게겐 신기한 일이었다. 성인이 된다는 것은 머나먼 이야기 인줄 알았는데 벌써 성인이 되어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였다.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고등학교의 생활과는 완전히 달라서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많이 적응한 것 같아서 뿌듯하다. 1학기 때 많은 걸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종강을 한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좋다. 1학기 때는 적응 한다고 잘 못 쉬었으니 종강이 시작되면 여기저기 많이 놀러 다니고 싶다. 그리고 다음 학기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강유나(보건행정학과 2)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기말고사를 치루고 드디어 종강을 했다. 중간시험 때 보다 범위가 많았던지라 더 머리로 아프고 힘들었지만 기말을 본 후엔 두 달이라는 휴식이 있기에 시험을 봤다. 종강을 하면 항상 아쉬운 건 교수님들 수업이 이제 끝나면 다음 학기에 못 볼 수 있어서 그게 늘 아쉬웠다. 이번 여름에는 자격증 공부도 하고 운동도해서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야겠다! 친구들, 교수님들 다음 학기에 배요~! 한 학기동안 감사했어요. 사랑합니다♡



김보람(상담심리학과 2)

처음 학교에 간 날, 눈이 펄펄 오던 우리 학교가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2학년 1학기의 종강을 맞이했다. 2학년의 나는 우리 학교 학년 과대라는 역할을 맡아 간부 활동을 하며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과대라는 자리의 부담감도 어느 정도 느꼈지만, 배려해주는 소소한 마음들에 힘입어 즐겁게 활동할 수 있었다. 항상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하는 상담심리학과 2학년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 누구나 매일이 처음이니깐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면서 지냈으면 좋겠어! 상담심리학과, 광주여자대학교 화이팅!

정유담 기자 jyd201800@naver.com

『어등자유게시판』에 글 올려주신 분께는 문구그룹 모나미에서 기획한 '삼일절백주년기념볼펜 스페셜 에디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영화 속속’

롱 리브 더킹 : 목포의 영웅

장르 액션, 드라마 감독 강윤성
개봉일 2019.06.19. 국가 한국
상영시간 118분

2017년 장편 데뷔작 『범죄도시』가 흥행하며 대박을 터트린 강윤성 감독이 2년 만에 준비한 작품이다. 김래원, 원진아, 진선규, 최무성 등과 함께한 영화이다. 거대 조직의 보스로 회장 소리까지 들으면서 살고 있는 세출(김래원), 어느 날 철거 구역으로 나간 시위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변호사 소현(원진아)을 만난 후, 그날로 ‘좋은 사람’이 되기로 마음을 먹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던 그는 우연히 사고 현장에서 목포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며, 이어진 인기 덕에 국회의원 자리에 출마하게 된다. 이에 목포에서 3선을 노리던 반대파 후보 만수(최귀화)는 라이벌 조직 보스 광춘(진선규)과 손을 잡고 세출(김래원)을 무너뜨릴 음모를 계획하게 되는데...

오랜 기간 동안 제작되면서 ‘착할 땐 착한 조폭 나쁠 땐 나쁜 정치인’이라는 공식으로 전개가 되며, 영역 다툼부터 개과전선 등 똑같은 재료들의 배합만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결과물들이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선보인다.

『롱 리브 더킹』도 주먹과 배짱만으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조폭이지만, 속이 그렇게 따뜻한 남자는 없다. 타고난 성품과 의지는 모범적임에도 배움이 부족해 잘못된 길로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런 그가 우연한 기회로 길을 바로잡아 줄 사람들을 만나고, 전부터 갖고 싶었던 배포를 발휘해 일생일대의 위대함에 도전하는 전개이다.

한 쪽에선 조폭으로써, 또 한 쪽엔 건실한 청년으로써의 장세출(김래원)이 메인인 탓에 뒤따르는 조연들의 존재감이 아주 인상 깊다. 이처럼 개봉 전부터 『범죄도시』 강윤성 감독의 차기작으로 뜨겁게 화제를 모으고 있으며, 거대조직 보스 ‘장세출’이 온몸으로 뛰어들어 목포 영웅이 되고 그렇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까지 하게 되는 내용을 담은 영화 『롱 리브 더킹 : 목포 영웅』은 이번 달 6월 19일에 개봉을 하니, 올 여름 유쾌함과 통쾌함을 동시에 느끼며 관람하길 바란다. 양유빈 기자 amy710703@naver.com



광주여대 미디어센터 ‘책사랑’ 캠페인④

책은 삶에서 그림이나 도시의 사진과 같은 것이다.
뉴욕이나 파리의 사진은 보았으나 실제로 가본 적이 없는 독자가 많다.
그러나 현명한 사람은 글과 함께 인생 자체도 읽는다.
그리고 인생은 커다란 학교다.

임어당 (林語堂)
<생활의 발견>

